

민주 대선주자들의 컷오프 통과 필승전략 부심

“정책 승부” TV토론 불꽃공방 예고

정책 총점검... 토론회·연설회 준비 집중

박준영·김영환·조경태 호남 민심잡기

민주통합당이 오는 29~30일에 경선의 첫 번째 관문인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대권 레이스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예비경선을 위해 다음 주 동안 총 5차례의 방송토론회와 4차례의 지역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기로 해 대선주자들은 이 자리에서 상대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 필승의 전략을 보여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들 후보는 22일 일제히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TV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전열을 재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후보는 21~22일 주말 일정을 잡지 않고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들을 총점검하며 토론회와 연설회 준비에 집중했다. 당내 지지를 1위의 문고문은 자신이야말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대세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후보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정책토크와 미팅을 하며 토론회와 연설회 준비에 매진했다. 손 고문은 22일 오후 제주도를 찾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 예상질문과 답변을 뽑아 토론회 리허설을 했다. 손 고문 측은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보고 이번 TV토론회를 통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고향인 전북을 방문했던 정세균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금지법’ 등 교육 민주화 3대 입법 추진을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대전을 다녀온 뒤 그동안 내놓은 주요정책을 점검하며 토론회 준비에만 집중했다. 현재 지지율이 정체돼 있지만 콘텐츠만은 다른 후보에 비해 앞선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토론회를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는 생각이다.

김두관 후보의 최대 강점은 ‘이장에서 대선후보’라는 스토리가 있는 후보라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김 지사의

전략은 정치적 이력을 강조하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오전에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합을 이루는 경선’, ‘정책경선’,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을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준영·김영환·조경태 후보는 이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박준영·조경태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회 출범식 및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김영환 후보는 광주 조선대와 전주 건설회관에서 연이어 저서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장고’에 대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 강정마을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이들은 모두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번 경선을 통해 호남 지역민들의 상한 마음을 달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주당 당원들의 열기를 저변에서부터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조경태 의원의 강점은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 부산에서 3선을 이뤘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토론회와 연설회를 통해 자신만이 지역주의를 허물고 정치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 김영환 의원이 22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달리며 입장하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린 롯데 불매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정길 전 행정부 장관이 22일 제주 강정마을 강정포구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연합뉴스

권노감 “민주, 안철수 영입 미흡”

김대중 전 대통령의 좌장인 민주통합당 권노감 상임고문은 최근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관련, “안원장이 당에 입당하도록 누군가가 역

할을 해야하는 데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당 대선 주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안원장을 입당시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누군가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 후보는 모바일이든 여론조사든 어떤 방법을 연구하든지 안원장과 단일화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면 민주세력이 반드시 12월 대선에서 이긴다”고 확신했다.

그는 또 “1995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조순 박사를 직접 찾아가 당에 입

당시켜 조 박사가 내부 경선과 시장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안원장이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 과거 정몽준-노무현 식으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경우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고 안원장으로 단일화되면 반드시 민주당에 입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새누리 非朴주자 4인 박근혜 따라잡기

소통·젊음·정책 등 차별 전략 내세워 맹추격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운동의 막이 오르면서 비박 주자 4인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추격하기 위해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

경선 출발선에 선 태희 전 대통령실장·김태호 의원·안상수 전 인천시장·김문수 경기지사 등 4명은 당의 최대주주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박 전 위원장의 뒤편에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은 현재 박 전 위원장과 차별화와 북돋는 선거운동을 통해 맹추격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정면들과 구호를 전면에 내세운 임

태희 전 실장은 20년간의 경제관료 생활, 당 정책위의장,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등 정책통으로서의 경험을 심본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공약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박 전 위원장은 물론 민주당 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 유력 주자들과 자신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교, 정책경선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경선 최연소(50세) 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젊음·열정·도전을 키워드로 박 전 위원장과 차별화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또 경남지사 경험을 살려 박

근혜 복지의 제원확보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5·16을 비롯한 박 전 위원장의 역사인식을 적극 거론하며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안상수 전 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박 전 위원장이 5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SNS를 활용, 50대 이하 유권자를 파고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문수 경기지사는 서민·민주주의·소통·행정경험을 내세울 방침이다. 박 전 위원장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대권주자 권력구조 개혁론 고개

문재인·김두관 적극적...개편 방향·시기엔 이견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1987년 체제’인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은 같지만,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우선,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들은 4년 중임제 도입은 물론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17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되 정·부통령제 및 내각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들어 의원내각제에 반대한다면서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혁을, 조경태 의원은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정·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론이 대선 이슈로 부상할지는 미지수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이 유권자의 표심을 끌고 올 절대 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비서실장 물색 나선듯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최근 비서실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안원장은 이달 초부터 비서실장에 적합한 인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5월 홍보전문가인 유인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대변인 겸으로 영입한 데 이어 비서실장 인선 작업은 대선 가도에 앞서 진용 구축의 첫 단추를 꿰 것으로 해석된다.

안원장은 특히 19일 저서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한 데 이어 23일 방송될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대선 출마 공식 선언에 앞서 물밑에서 진용 구축과 홍보전을 동시에 준비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안원장 측은 범야권 출신 인사들을 두루 물망에 올렸고, 고(故)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 계열, 이른바 GT계 인사에게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원장은 그간 GT계에 깊은 애정을 드러내 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작고한 김 고문의 빈소를 찾은 것은 물론 김 고문의 부인 인제근 여사가 지역구를 물려받아 지난 4·11 총선에 출마하자 공개적으로 격려메시지를 보내 응원하기도 했다.

안원장의 입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유인영 전 춘추관장도 범GT계 인사다.

그러나 유 전 춘추관장은 “캠프를 구축할 상황이 아니다”며 “비서실장 인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

경매투자 자본물건등 특수물건 NPL 부실채권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주1회 2시간 3개월 스테디
→ 교육비 / 임차활동비등 회비 550만원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수료증 / 평생 무료상담 혜택

무료 공개 강의

·제목: 특수물건 / NPL물건 투자등등
·일시: 2012년 8월8일(수) PM 8시
·인원: 선착순 10명(상담후 결정)
·기타: 교재무료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 2번지 E-mail: csg5000@hanmai.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